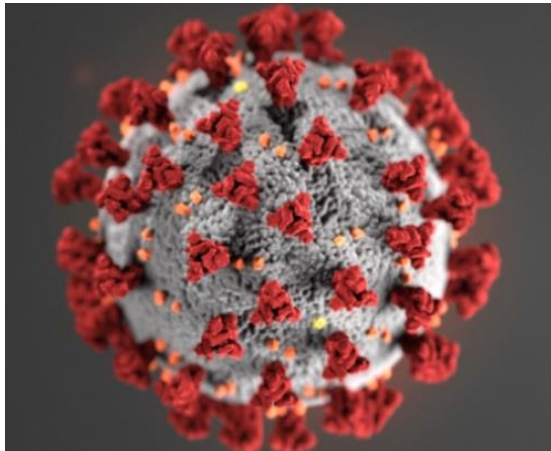


대구 치료 현장의 코로나 19 & 치료 현장의 교훈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동은



권영진 시장 "대구시 메르스 사태때 가장 모범적 대응 도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4:04] [본문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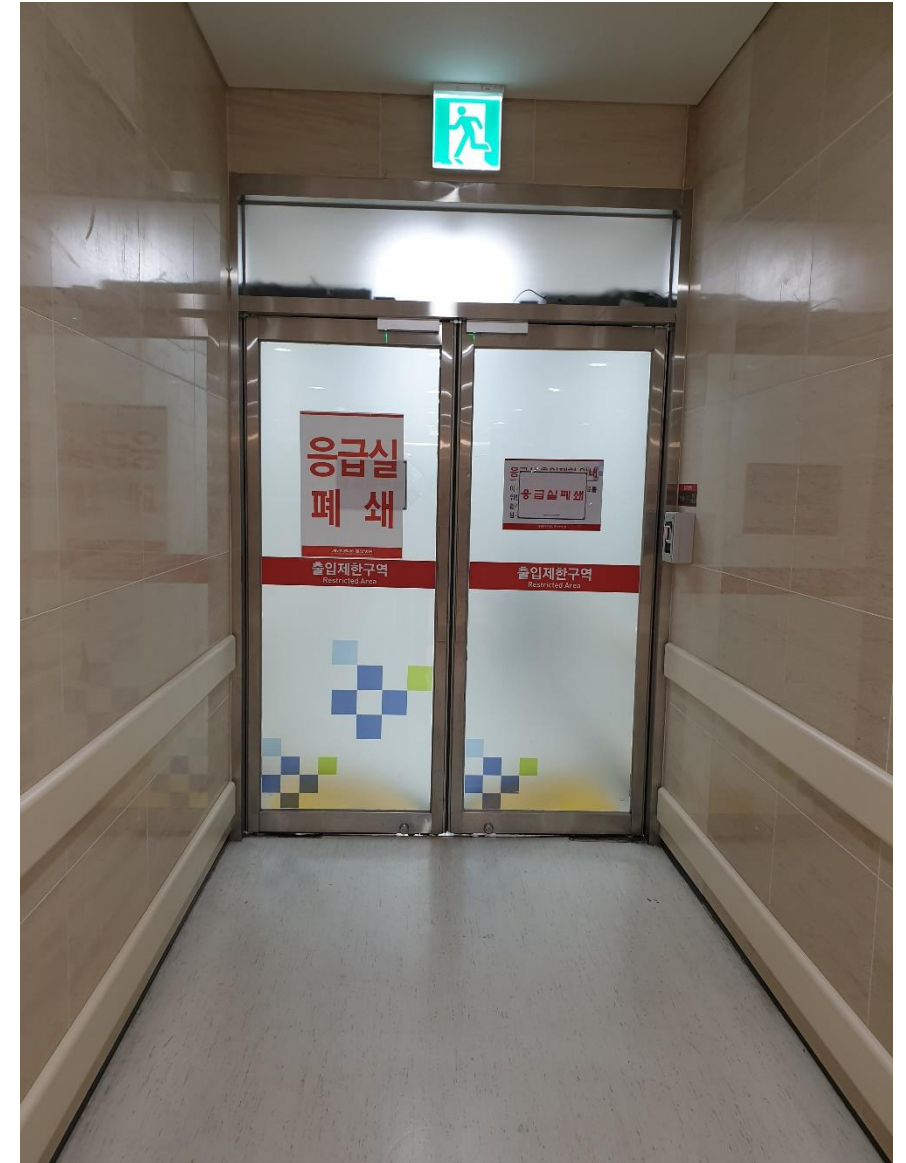


또 권시장은 "대구시는 메르스사태로 겪었고,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
다"며 "다른 시도의 방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경험 속에서 배웠던 부분들
을 잘 활용한다면 이번 상황도 잘 이겨낼 것"이라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응급실 폐쇄...응급환자 진료 공백 우려

3차 의료기관 응급실 5곳 중 4곳 폐쇄
춘각 다투는 응급환자 진료 공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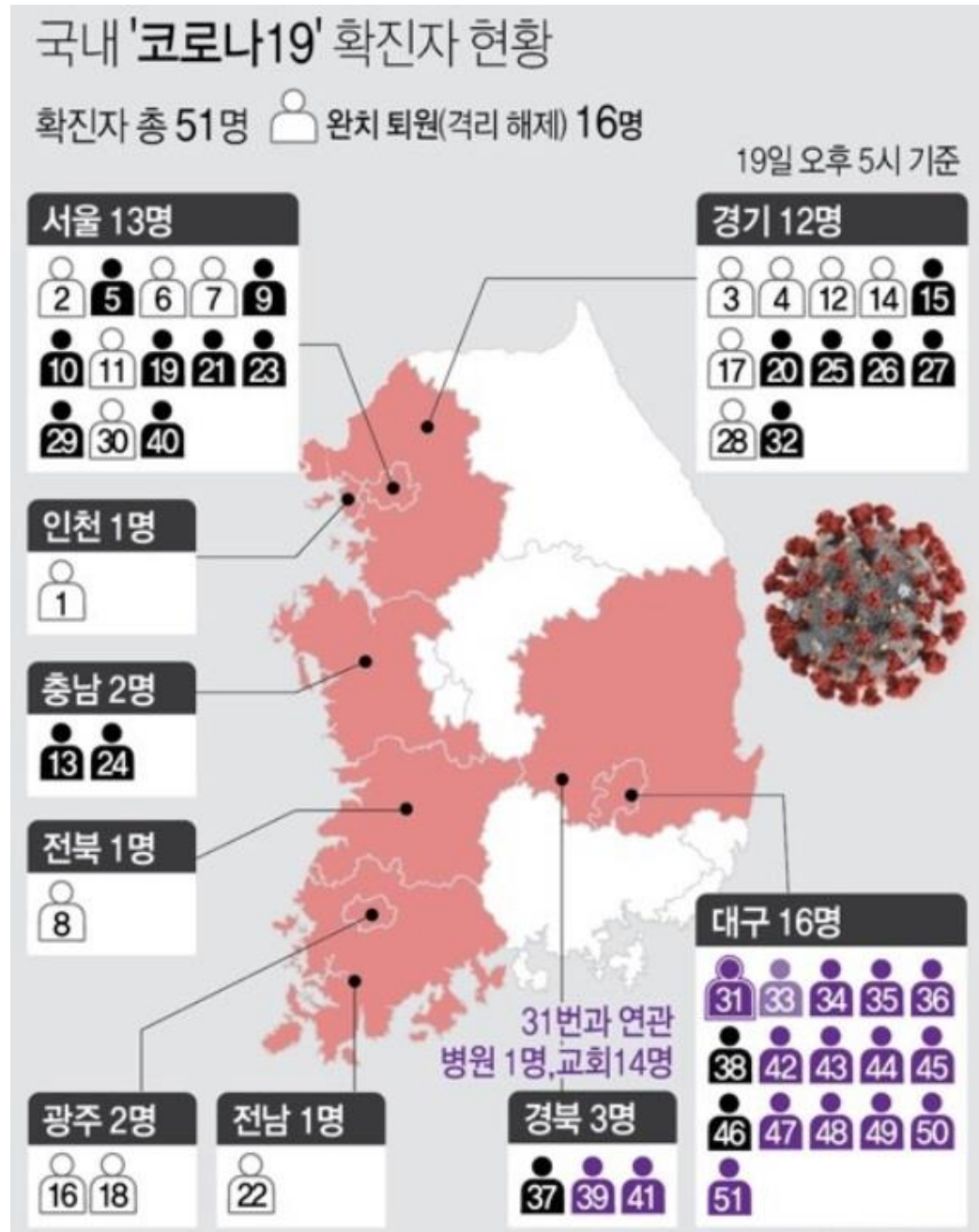
권영진 대구시장: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중앙정부에 호소한다. 대구시 사례에서 보듯이 코로나19가 이미 지역사회에 깊숙이 퍼져있다. 대구시 자체 역량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단 파견, 필요한 **역학조사 및 의료 관련 인력 지원, 음압 병실 확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권 시장은 또 “대구에 음압 병동이 총 65개 있지만, 활용 가능한 병동은 20~25개뿐” 이라면서 음압 병실 확충을 위한 지원도 호소했다.

정 총리 : 대구시민들이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Medi-city 대구’
단 하루 만에...



코로나19 특집
2020 대구 봄

LTE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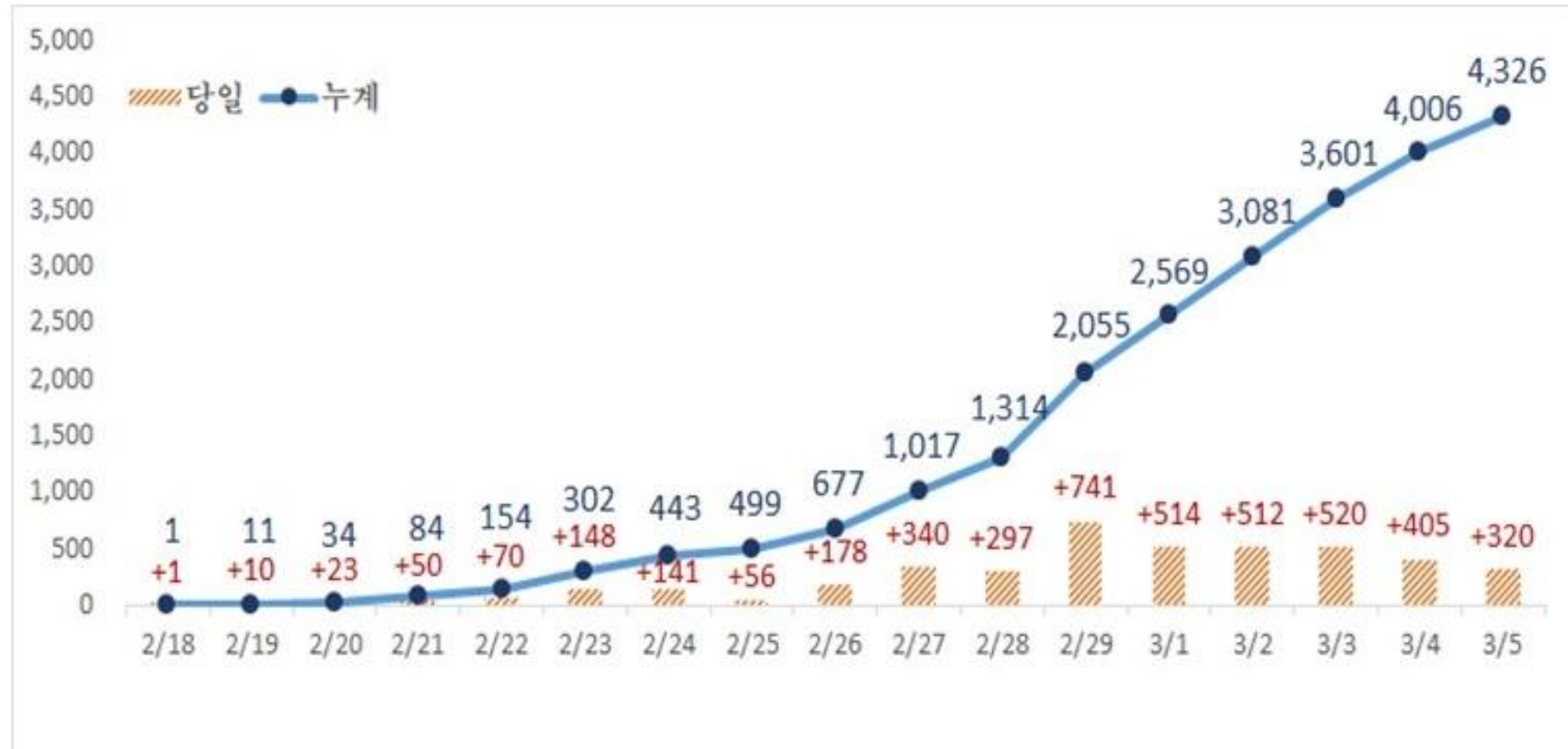
병원 전 구역 소독을 위하여
금일 진료는 휴진입니다.
고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대남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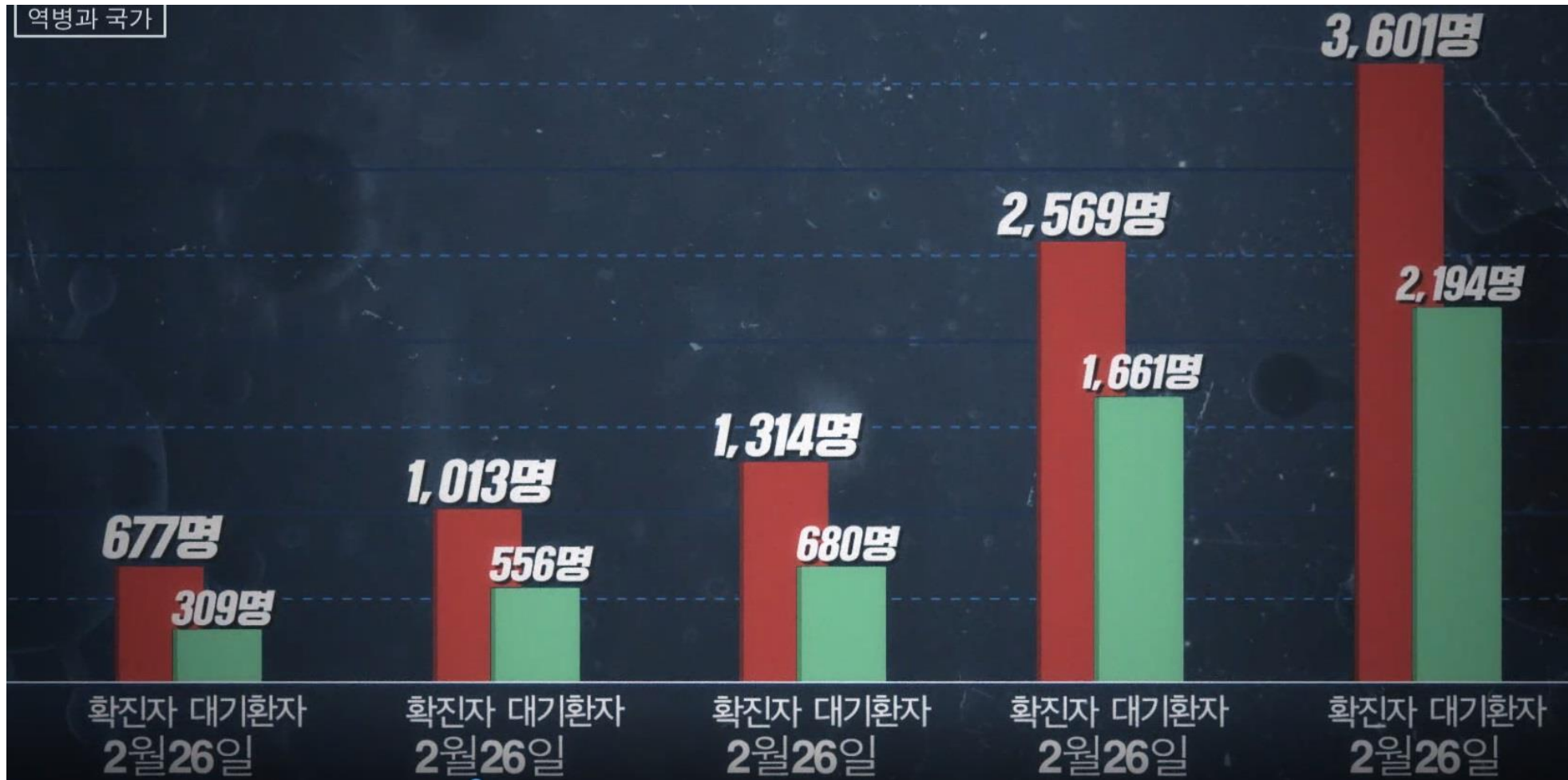
NEWS
DESK

코로나19 첫 사망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

구독



※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에 의거 재구성



대구 병상 25,000개 그러나 입원할 병실은 없었다....

대구 병상난에 재택 대기 '코로나19' 환자 2300명

사회 > 사회일반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75명 중 17명, 입원 못하고 숨졌다

뉴스홈 | 최신기사

"염려했던 일이"...고령·지병 코로나19 환자 입원대기중 숨져

송고시간 | 2020-02-27 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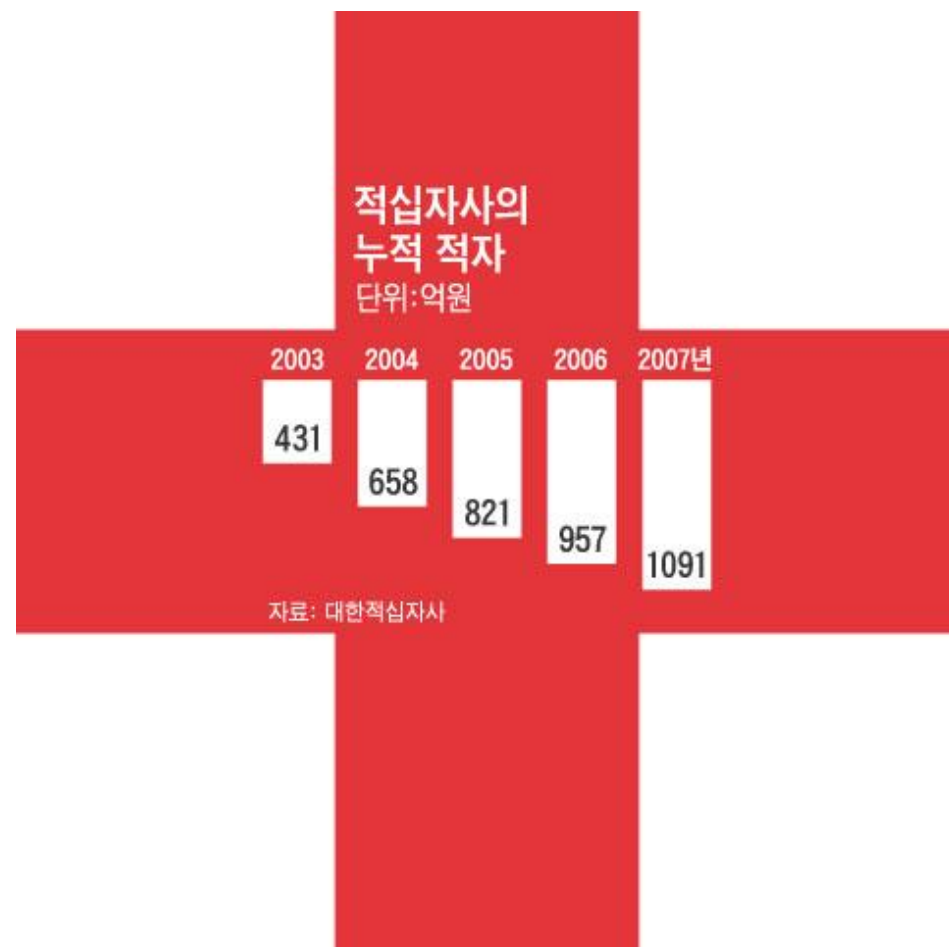
عرب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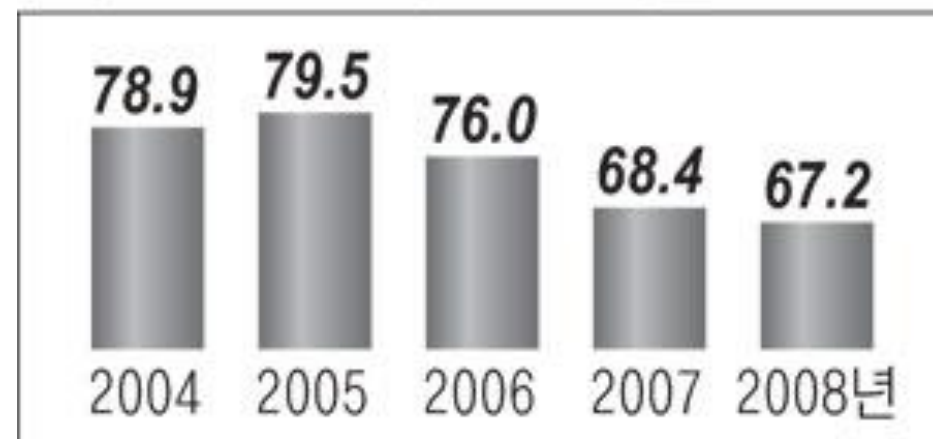
- 의료사업을 통한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정신 구현
- 지역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보건의료사업 전개로 의료취약층 지지

대구적십자병원 폐원(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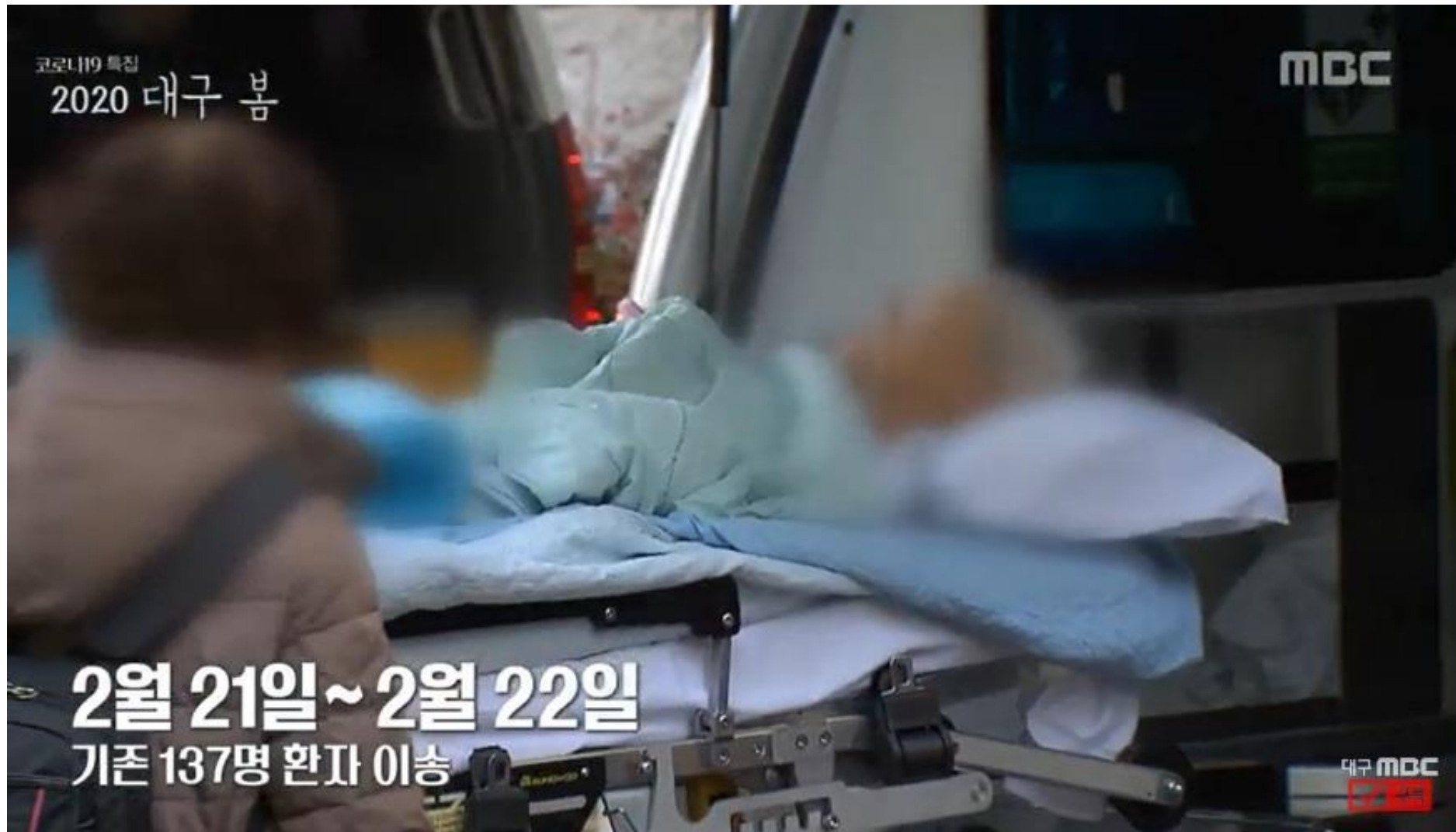




대구 적십자병원 연도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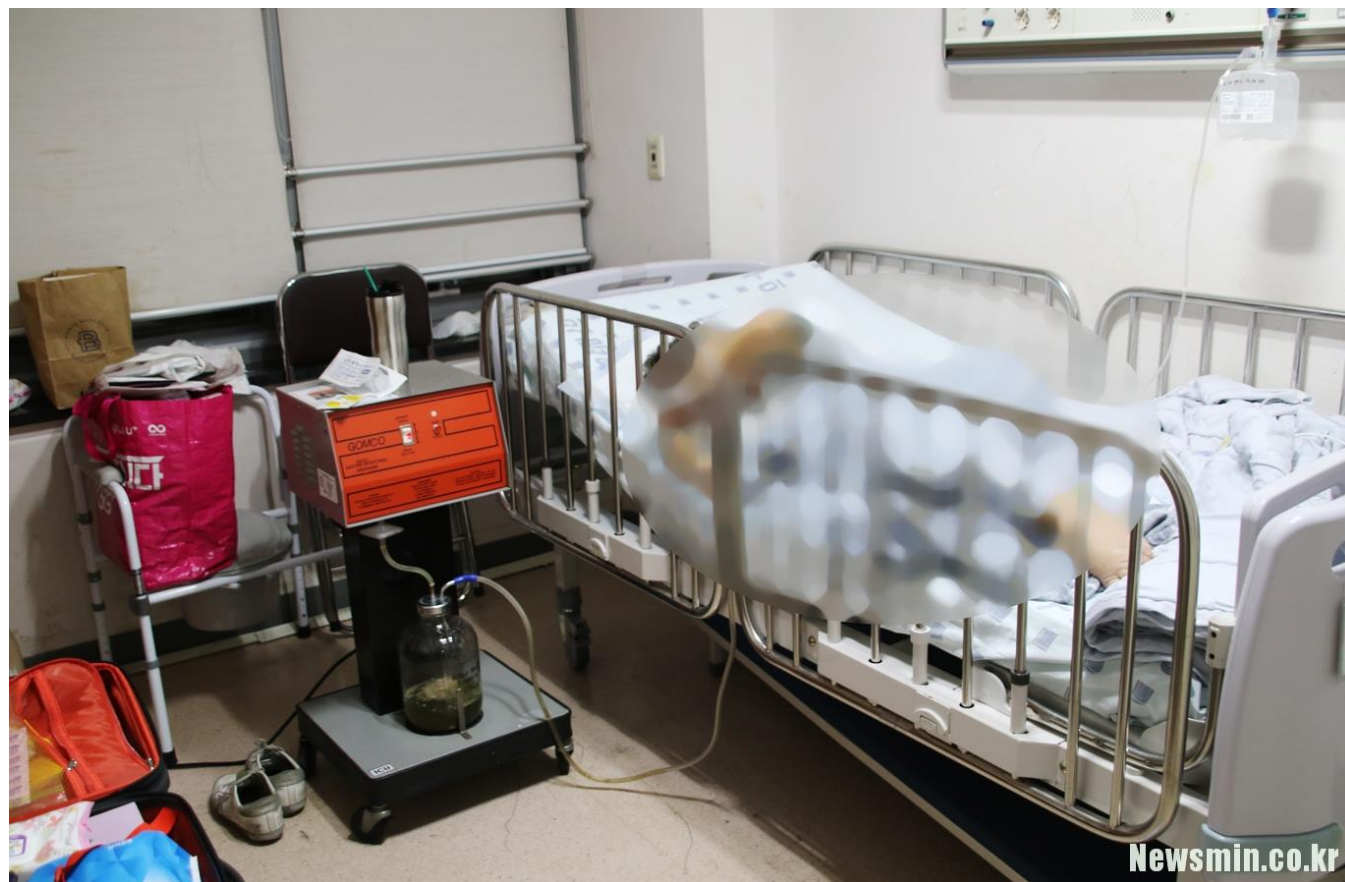


(자료:대구 적십자병원 / 단위:%)



병원 입원 환자 소개령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환자들이랑 있을게. 나가도 우리 엄마는 죽는 거고, 있어도 죽는 거면 우리 엄마랑 여기 있을게 라고 버텼거든요”



대구 의료원 중증 환자

역병과 국가



(환자분들이)
왜 옮기라고 하느냐고 옮기기 싫다고

SBS SPECIAL

간호사들의 고통

A 씨는 “여기 직원분들도 황당한 건 맞아요. 갑자기 아침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방법이 없는 거
예요. 미안하다는 말씀 밖에 안 해요”라며 “시장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책상 정치에
요. 저거는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동생인 B 씨도 “브리핑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현
장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라고 덧붙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저녁 7시 50분경 <뉴스민>과 통화에서 장 씨 이야길 전하자 “30명 정도
반드시 전원 조치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셔야 하는데, 안 받
아주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 대학병원장들과 회의를 했다”며 “각자 병원에서 전원 조치를 받
아주는 거로 회의하고 나왔다. 그런 분들은 챙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의료 체계는 애초에 없었다.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는 경증 환자



역학 조사관 단 1명...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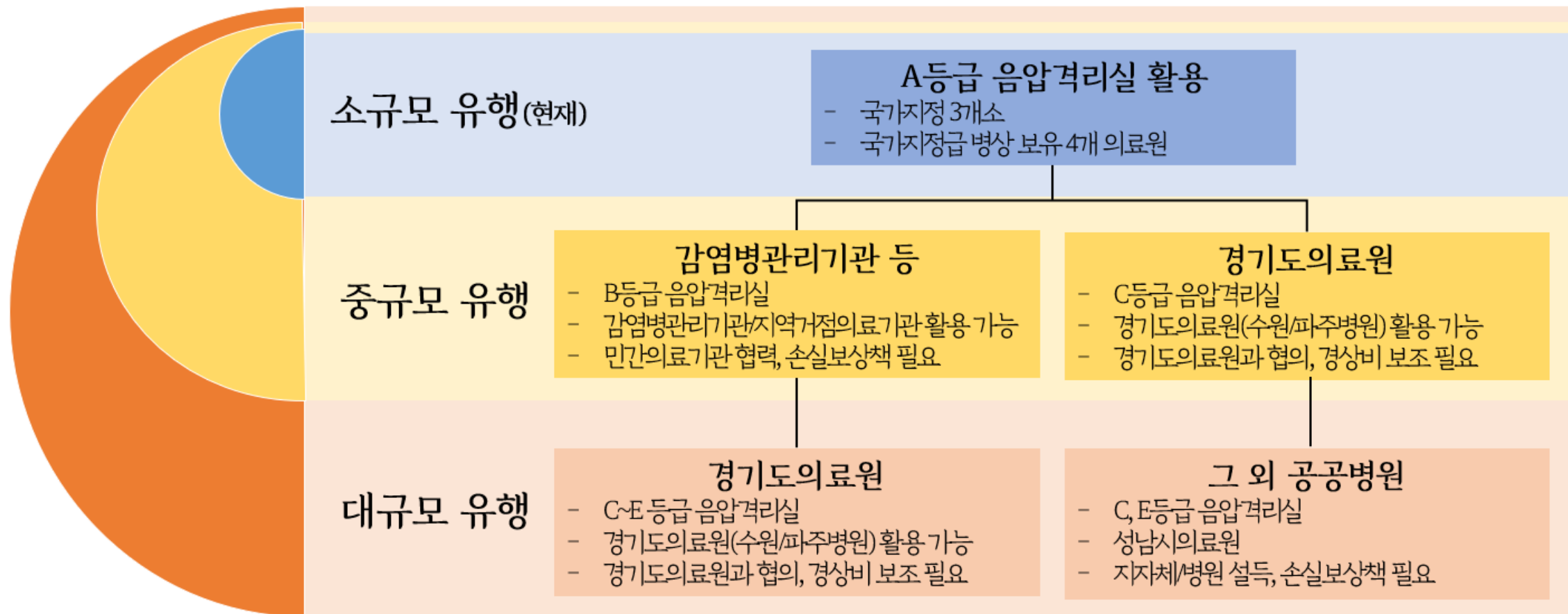
대구MBC에 따르면 인구 250만명의 대구시는 전문 역학조사관이 1명뿐이었다. 대신 의사 면허가 없는 시청 공무원에게 임시로 역학 조사를 맡기고 있었다.

반면 메르스 사태 이후 선제적 대응을 해온 경기도는 최근 5배 가까이 증원했다.

경기도는 기존 6명에 지난달 29일 민간 역학조사관을 6명 총원했다. 이어 지난 14일 공중보건의 12명과 민간전문의 4명을 총원해 총 28명으로 늘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에서 한 번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최대 지방 정부답게 선제적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니 **적극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기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역학 조사관 선제적 증원, 폐렴환자 사전 전수조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많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경기도의 모범 사례를 적극 활용**해 대응해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도내 병상 활용 전략

| 병원 위치 | 관리 가능 중증도 | 특이 사항 |
|-------------------------|-----------|--|
| 분당(H1) | 중증, 기저질환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병실 여유 병상 확보 |
| 명지(H2), 수도(H3) | 중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남북 지리적 접근성 고려 |
| 안성(H4) | 경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문제로 5일 이상 활용은 무리 경상비 보조 |
| 수원(H5), 이천(H6), 성남 (H7) | 경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인 준비 시작 후 2주 기간 필요(안성병원 경험) 병원별 준비 사항 확인 예정 (2/19) 경상비 보조 |

지자 체 설득과 병원, 직원 설득이 우선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따른 병상활용 방안 결정이 필요함

[포토뉴스] 대구의료원 간호사 150명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원 환자 130명..."간호사 기진맥진"

기사입력 2020.04.02. 오후 11:49

기사원문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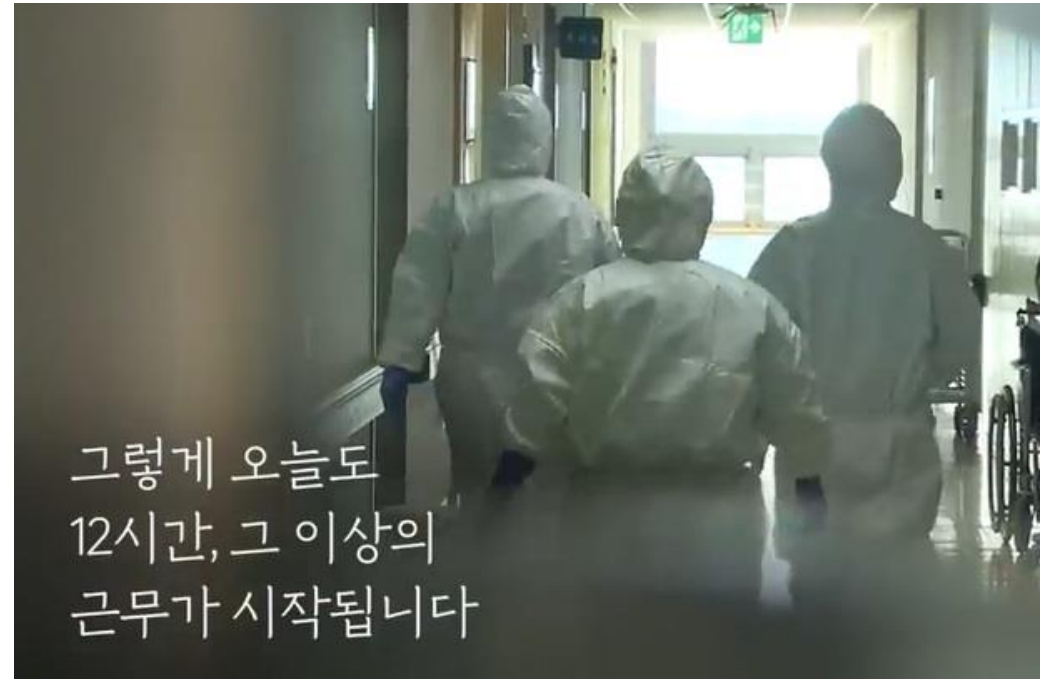
본문듣기 · 설정



간호인력 절대부족...



12시간 이상 근무...



그렇게 오늘도
12시간, 그 이상의
근무가 시작됩니다



아 눈물 날라 한다

대구의료원 간호사입니다.

6일 전 오전 1:47

6일 오전 대구의료원에서

간호사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단 2주의 자가격리.

아니 단 3일의 휴식조차 주지 않고

인력을 돌립니다.

의료인 감염 대부분 간호인력...



그동안 우리 대구는 타 지역보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왔으나, 2월 19일~오늘에 걸쳐 수십 명의 확진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대구 전체가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우리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로부터↵

우리 “대구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감염 확산 방지와 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의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진을 믿으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수도권 최초 '해외 환자 年 2만명' 유치 눈앞...메디시티 역량 증명

■대구,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메디시티 대구가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구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만4천271명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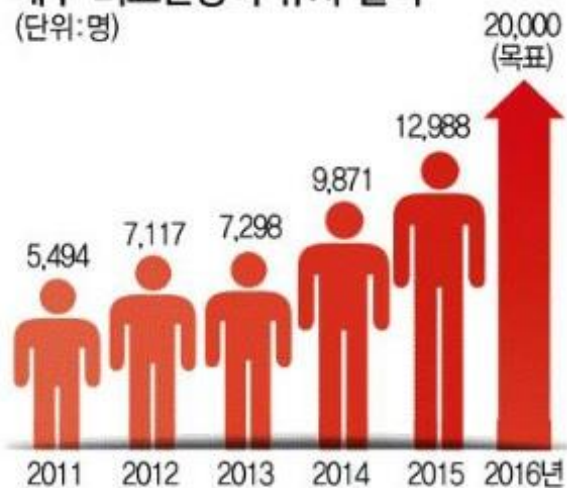
대구시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해외환자 유치 2만명'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의료 허브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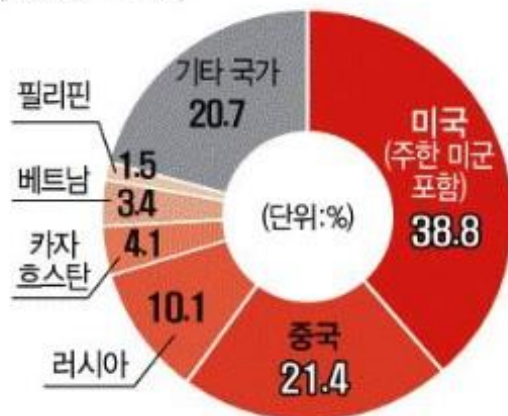
대구가 올해 해외 환자 유치 2만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환자 2만명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53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천여 명의 고용창출 성과로 이어져 메디시티로서의 역량을 실적으로 증명하는 쾌거를 이루는 것이다.



대구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단위:명)



대구 의료관광객 국가별 구분
(2016년 1~8월)



〈자료:〈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학교병원에는 크게 2가지 국가의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미국

대구에 미군부대가 있어 **미군**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방문했을 때 1층 카페에서 실제로 미군을 봤어요!

러시아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 방역... ‘메디시티 대구’의 저력 보여줬다”

권영진 대구시장 인터뷰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민을 검사, 전 세계를 주목시킨 편파.”

“특별의 시사주간지 ‘슈퍼월’은 6월 발행분에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국가 전체를 김사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중이기에 소개했다. 슈퍼월은 ‘한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미국처럼 했을 것’이라는 대구시청사와 관계자의 설명을 전하면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수조사를 높게 평가했다. 슈퍼월은 ‘대구시와 시민의 대구시가 펼친 이 감격적한 수조사는 바이러스가 많은 시민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았다’며 ‘중심이 삼한 정도에 따라 환자들 분류하고 치료병상 운영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국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성공한 시민의식을 소개하는 최신 보도가 최근 잇따랐다. 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것 같은 사태를 맞은 대구시는 불안에 보였을지 몰라도 급증했고 하루 뒤 상황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원조사, 치료장소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힘쓰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 도움이 됐다. 1월 부산안민대투본부가 가동된 이후 19일까지 휴일 없이 일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 인터뷰했다.

“대구시민이 감내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았다.”

“경제조치 치르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업들은 매출 급감으로 파도가 막대하다. 전출시장은 최악의 경기를 겪고 있다. 모두가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유가에 강한 대구시민의 유전자(DNA)는 코로나19에 맞서 놀라운 정도의 저력을 보여준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과와 대구시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

오늘부터 각계 리더 200여명 참여

방역 연계한 범시민운동 전개

감염병 확산 대비해 ‘백서’ 만들 것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아무도 기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었다”며 “대구 시민들을 서로 응원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제공

“초기 대응에 대한 비전도 있었다.”

“아무도 기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었다.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각국에서 어지러운 대응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구의 초기 대응에 대한 자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328(3월 15~28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대구운동”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성공적인 모델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아무도 기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었다”며 “대구 시민들을 서로 응원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장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방역 대응 초기에 수많은 음모론이 있었다.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와 병상 확보를 위해 고강도분투하고 있을 때 방역을 방해하는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돼 참담한 심정이었다. 정치이념으로 치우친 논란에 휘둘러 방역에 혼선이 생겼다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과 전국 전파를 막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대구시민과 대한민국 공동체가 보여준

상황에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구는 이미 경험한 일들이 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 참여를 통한 방역을 내세운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데...”

“20일부터 대구 전역과 모든 분야로 확산하는 방역을 연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한다.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200여 명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사업장별,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마련한다. 문화 교육 교통 체육 돌봄 등 여러 분야의 세세한 수칙을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 대구 백서”를 통해 방역도시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민이 최고의 방역이자 백신이었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지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지혜롭게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민의 헌신과 희생만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 감염병의 대구도 유행과 확산에 대비해 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병상 및 의료 기반 초기 확보 같은 사례는 대응 매뉴얼로 만들어야 한다. 대구가 겪은 시련과 아픔, 경험은 앞으로 감염병을 대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백서에는 일련의 대응 과정과 개선 과제, 대구시민, 의료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향후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대구=장영준 기자 jang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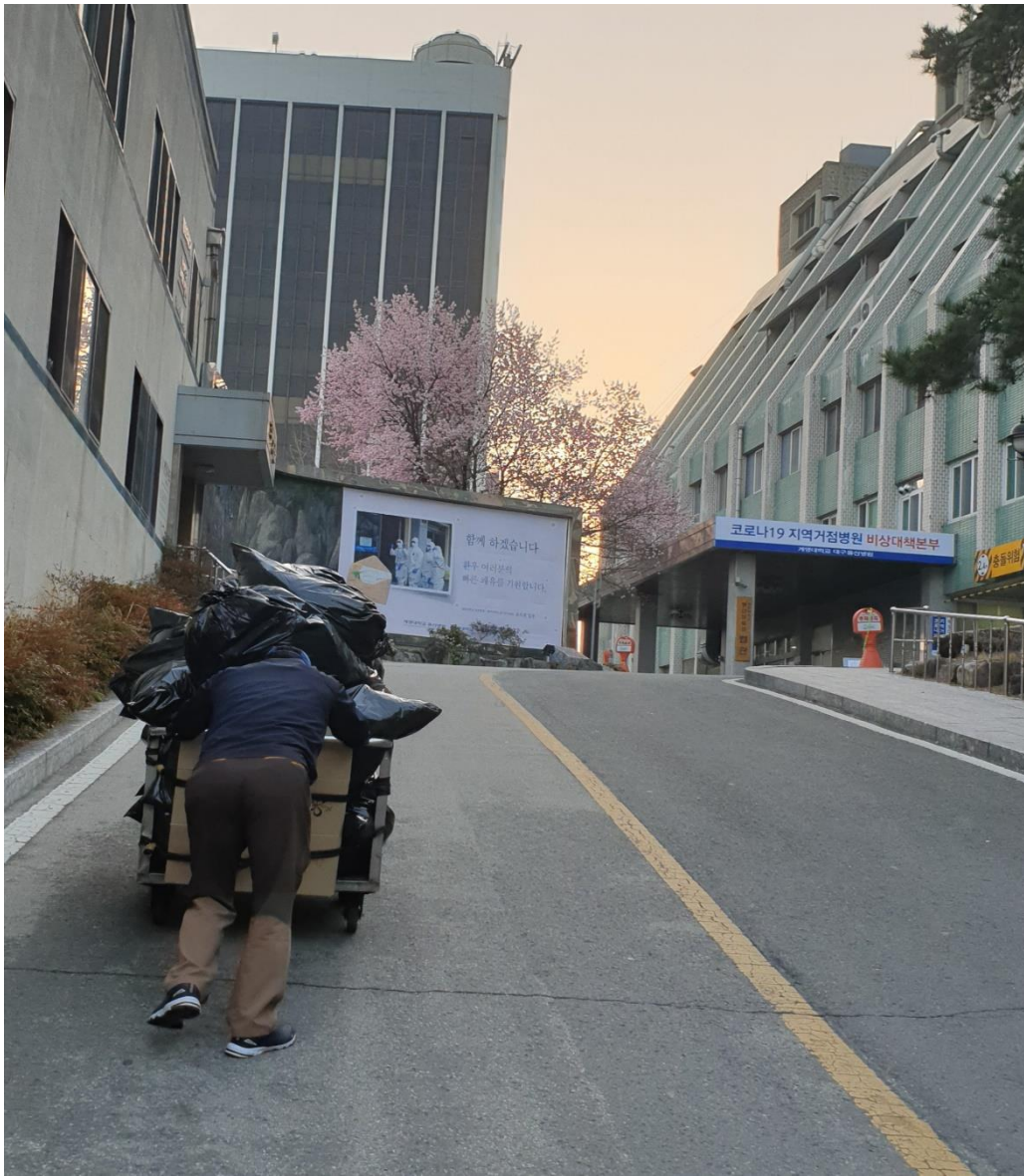
어이없는 자화자찬...

역병과 국가

조금만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SBS SPECIAL

유가족의 눈물...



보이지 않는 노동...



시사 IN 657호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바이러스...



따뜻한 연대...



전국에서 달려온 의료인의 헌신



공공가염 전무 병원 없을까?

왜

코로나 이후 415 총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카드뉴스 1탄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합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간호사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간호사 한명당 스무명 가까운 환자를 돌봤습니다.
담당하는 환자들이 많다보니
환자 한분 한분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확대되자 이들을 돌볼 간호사가 부족해
전국에서 자원을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 치료하다

내가 죽겠다!



감사합니다.